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논의를 통한 종교교육의 교육 경험 모형 구성

명 지 원

삼육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한국 학계 내외에서 인간존재의 ‘전인성’을 구현하는 것이 종교교육의 목표라는 차원에서 홀리스틱[전일적, 全一的] 교육의 시각과 모더니즘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활발한 통섭(統攝)의 시각에서 종교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가능성의 모색으로서 홀리스틱교육 모형을 에니어그램과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모더니즘의 요소주의적이고 결정론적 특징은 학문의 분과주의 경향과 학문 분과 간의 소통의 부재는 모더니즘의 특징으로서 이로 인한 총체적인 인간 실존의 위기는 곧 현대사회와 현대교육의 위기로 분석되고 있다. 홀리스틱교육은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본질에 천착한 ‘관계성’과 ‘연계성’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접근이다. 종교영역에서 논의되었던 인간의 존재차원의 대표적인 ‘영성’ 개념을 일반적인 인간 이해를 위한 용어로 해석하고 있다.

관계성과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한 자신과 우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홀리스틱교육이라고 할 때, 이는 종교교육의 지향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홀리스틱교육의 시각에서 통섭과의 관계성 논의를 통하여 ‘생태와 환경’이 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공동체, 집단지성, 공존과 연대 등이며 이의 바탕은 인간 내면과 외적 환경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식이다. 종교가 인류가 잊어왔던 ‘큰 가르침’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핵심 주제어: 통섭, 홀리스틱교육, 생태학적 접근, 탈학문적 접근, 에니어그램

I. 서론

모더니즘 기획의 결과와 21세기 미래를 위한 지향과 바람이 혼재한 시대 상황 속에 교육영역을 포함한 인간의 삶 전 영역에서 새로운 교육의 시각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모색되어 왔다. 이의 핵심은 곧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의 문제와 본질에 천착한 의미추구를 통한 인간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교육영역에서는 홀리스틱교육이 21세기 대안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모더니즘이 놓쳐왔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접근으로서의 성찰과 근본 모색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간에 대한 시각을 ‘관계성’과 ‘연계성’의 틀로 접근하며, 인간 내적 및 외적 접근의 통합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경향이다. 그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것은 인간의 전인성 즉 지와 체와 영이라는 인간존재의 다차원성을 강조하면서, 종교영역에서 논하던 ‘영성(spirituality)’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객관적 실증주의에 기초한 과학주의적 모더니즘 교육의 문제점은 이러한 관계와 의미의 교육에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과 삶에 대한 표피적인 이해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세계를 중시하고, 자신의 존재의 본질과 삶의 본질문제를 도외시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로 ‘저기 밖에(out there)’ 있는 비본질적 목적을 지향하게 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본질을 찾는 노력을 외면한 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의 개인 내적, 외적 관계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고 실천’케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한계가 노정되고 새로운 방향과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사회의 학계 안팎에서는 통섭(統攝, consilience) 개념이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학문과 학문 간, 학문과 현실 등 다양한 학문과 장르의 경계 허물기와 접목이라는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간학문적 연구에 이어 통섭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의 확산은 경계 허물기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맥락과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우리 학계와 사회에 공고히 자리 잡은 모더니즘 학문적 체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윌슨(E. Wilson)은 인간의 지식이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인간 외부 세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21세기적 지식 혁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서구 학문의 큰 줄기에서 갈라져 나온 다양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지식 통합의 가능성을 찾아 명확하게 보여준다.

학문의 목적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는 수많은 분과학문으로 나뉘어 타학문과의 연계성에 대한 창발적 관계형성과는 관계없이 자기 영역에서의 전문성만

을 관심을 갖는 상태는 학문 본연의 목적 구현의 한계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성의 단절의 극복을 위한 논의인 통섭은 학문의 목적인 진리를 구현하기 위한 인류지성사의 발전에서의 당연한 귀결이다.

학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이 아닌 ‘진리탐구로서의 과학’이라고 할 때, 오늘날 통섭에 관한 논의는 모더니즘 기획의 한계로 인식되는 ‘진리’와의 거리를 좁히는 학문 본연의 정체성 확립으로서 인식되는 진리의 추구여야 할 것이다.

통섭 개념이 학계 밖에서는 자명한 개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다의적이고 불분명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¹⁾ 통섭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학문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성찰의 과정이다.

통섭 논의를 통하여 우리 교육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통섭과 생태학적 접근으로서 21세기 대안적 교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홀리스틱교육을 조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모더니즘이 미완성의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더니즘 기획의 논리가 이원성에 기초한 까닭이다. 이로 인해 지식과 삶이 화해할 수 없었고, 삶과 소통하지 못하는 지식을 넘어서기 위해 통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이다. 학문 분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학문과 종교, 학문과 삶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총체적인 인간 실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한 성찰적 의미와 더불어 홀리스틱 패러다임(holistic paradigm)으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섭과 홀리스틱교육에 대한 논의는 거의 동시에 등장하였다. 통섭에 대한 논의는 모더니즘 교육에서의 탈가치 지식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보다는 각 지식 영역과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홀리스틱교육 연구는 이론적 단계를 넘어 다른 학문과의 경계 허물기에 들어가 통섭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김복영은 과학과 종교의 가교를 놓고 경계를 허문 통섭이론의 대표적인 인물인 샤르탱(Teilhard de Chardin)의 교육사상을 소개하였다. 한명희는 2000년도 한국교육사회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에서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과 인간상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은 홀리스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을 전망하였다. 홀리스틱교육의 holistic이라는 단어는 생태(학)적이라는 의미의 ecological과 동의어로 쓰이는데, ecological이라는 단어의 시각에서 연구되는 논문이 기존에 발표되었다. 노상우는 생태주의에서 본 현대교육학의 세 가지 과제에서 노상우는 21세기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의 사상적 동인을 통해 과학주의에 대한 생태주의적 시각의 대안을 통해 21세기 교육에 대한 시각을 분석

1) 강신익, 『지식 대통합, 지금의 통섭이론 부족하다.』, 최재천 교수의 통섭에 대한 비판, 고대신문 2007.

하고, 객관주의적 지식에 치우쳐서 인간중심 혹은 이성중심 사고와 윤리에 바탕을 둔 현실 인식에서 보살핌과 상호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하는 성찰적 공동체를 지향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교교육 영역에서 홀리스틱교육을 연계한 논문은 있으나 통섭과 연계한 논문은 전무하다.

이 논문은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개념 사이의 연관성과 두 개념의 핵심적 공통점인 ‘관계성’의 논의를 기초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인간 내적 외적 연계의식과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간 양성과 21세기 교육의 본질과 지향이라는 종교교육의 목적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을 매개로 수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에니어그램과 스토리텔링모델을 통하여 각 학문 영역과 학습자의 내적 연계성을 홀리스틱하게 통섭하는 교육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우리 교육의 방향성을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에서 탐구하였으며, 통섭과 홀리즘 및 홀리스틱교육에 대하여 관련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통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의 가능성 모색을 위해 제2장에서는 홀리스틱교육의 특징과 생태학적 시각의 의미의 연관성, 생태와 환경 논의를 통한 모더니즘교육의 한계와 21세기 교육의 특징과 지향을 밝히고, 제3장에서는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개념의 관계와 특징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홀리스틱교육 시각에서의 통섭 모색 접근방법으로서의 생태와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제5장에서는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논의를 통한 종교교육의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전망을 논한다.

II. 홀리스틱교육의 특징과 생태학적 각성

홀리즘은 기존의 세계관과 교육관을 망라하는 접근이며, 전문적이고, 분석적이며, 환원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이며, 실증주의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현대 산업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서구 전통 과학의 근본적인 한계와 맹점을 지적하며, 세계를 아주 많은 관계로 이루어지지 만 결코 낱알로 떼어놓을 수 없는 움살스런 전일(holistic, wholeness)로 보는 사상체계인 시스템적 시각을 말한다(김재희, 1994: 124-125). 홀리스틱 시각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은 생태학적(ecological) 시각, 맥락적(contextual) 시각,²⁾ 영성적(spiritual) 시각(Miller, Clark(ed.),³⁾ 환경적(environmental) 시각,⁴⁾ 시스템적 시각(systemic),⁵⁾ 유기체적(organic)

2) Jesse P. Clark, "Environmental education as an integrative study",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In R. Miller(ed) (Vermon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0), p. 50.

3) Ron Miller, "A spiritual worldview", In C. L. Clark(ed.), *Holistic Education: Principles, Perspectives*

시각,⁶⁾ 진화적(evolutionary) 시각, 통합적(integrative) 시각이 있다. 이러한 용어의 등장은 생태학적 각성(ecological awakening)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의어로 사용되는 이러한 단어의 의미들은 21세기 교육⁷⁾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통섭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밀러(R. Miller)는 홀리스틱교육을 응축하여 설명하는데 “홀리스틱 이론의 핵심은 전일성(wholeness)의 다차원적 수준을 기술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5가지의 전일성의 수준’을 ‘전인, 공동체, 사회, 움살스런 지구, 우주’⁸⁾로 기술한다. 보다 최근에 그는 그것을 다시 전인, 공동체, 문화(무의식적 구조), 영성 네 가지 수준으로 정리하였다.⁹⁾ 이 네 가지 수준은 이전 시대에 간과했던 요소로서 파편화된 세계를 이어주고, 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줄 21세기 교육의 방향이 나아갈 지표가 된다고 할 것이다.

홀리스틱교육의 ‘홀리스틱’ 개념과 유사한 ‘생태학적’이라는 용어가 담긴 생태학적 세계관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통한 생명의 그물망(web of life)을 강조한다. 이는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다. 즉 인간은 그를 둘러싼 인간/비인간, 물질/비물질이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적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다. 밀러(J. Miller)는 『The Holistic Curriculum』에서 이 관계를 ‘연계’ 개념으로 연결시켜, 직관적 연관, 심신의 연관, 교과영역간의 연관, 공동체와의 연관, 지구와의 연관, 자기와의 연관으로 관련시키고 있다. 이는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영역을 망라한 것인데 위에서 열거한 밀러(R. Miller)의 전일성의 다차원적 수준이 도출되어 나온다.

생태학적인 홀리스틱적 접근은 인간 유기체와 그 인간이 관계하는 자연환경까지 교육적 범위가 확대되어야함을 요청한다.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interconnectedness, interrelatedness)를 통한 삶의 그물망을 넓혀야함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이론적 변화가 아닌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인간과 자연의 세계적 위기 관계에 대처키 위한 교육적 필연에서 나타난다.

강(P. Gang)은 21세기를 위한 교육과정 패러다임에 의미 있는 시사를 할 수 있는 7가

and Practices (Vermon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3), pp. 229.

4) Jesse P. Clark, *Ibid.*

5) Edward T. Clark,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Integrated Curriculum: A Student-Centered Approach* (New York: Holistic Education Press, 1997), p. 25.

6) Peter Gang, “The Global-Ecocentric Paradigm in Educatio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In R. Miller(ed) (Vermon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0), p. 83.

7) 한명희 · 고진호, 『교육의 철학적 이해』 (서울: 문음사, 2000), 457쪽.

8) Ron Miller, “Holistic Education: A Search for Wholeness”, R. Miller (ed.), *I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1), p. 25.

9) R. Miller, *What are Schools for?: Holistic education in American Culture*(3rd rev. ed.),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0/1997), p. 38.

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한다. 1992년 GATE 멤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요약했다. “20세기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이 마지막 10년은 인간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기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생태학적, 경제적 파멸의 문턱에 와있다. 이 지구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그 위의 모든 거주자들은 위협에 처해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인가?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데 무력한가?”라는 질문과 함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¹⁰⁾고 잘라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은 모든 시스템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구적인 생태학적 변화가 요청된다”¹¹⁾고 주장한다.

오르(D. Orr)가 “모든 교육은 환경교육이다(All education is environmental education)”¹²⁾라고 말한 것처럼 21세기 교육적 관심 영역은 21세기 학문 영역의 기초가 될 ‘환경교육’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현대 에코페미니즘의 내용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곧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는 생태계의 건강은 곧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교육은 현재의 생명경시 현상, 생명파괴 현상을 인간 자체의 변화나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연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혹은 이 양자의 상호관계에서 찾게 된다. 또한 교육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때, 그 행복은 인간 자체의 변화나 사회변화에서만 아닌 자연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 외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밀러는 “홀리스틱 교육은 본질적으로 근본적 수준에서 영적이다. 사실, 나는 전일성에 대한 어떠한 탐구도, 그 형태에 관계없이 ‘우리가 시작했고 알고 있는 처음 그 장소에 이르고자하는(arrive where we started and know the place for the first time)’ 본유적 열망에 대한 영적인 추구 또는 ‘기억(remembering)’이라고 결론 내린다”¹³⁾고 밝히고 있다. 이 본유적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 영적 특성은 종파적 용어로 인식되는 경우가 강했으나, 영적 특성이 인간의 본질적 요소임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도자들은 영적 특성과 능력을 위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의 근본적 변용을 요청하는 것이다. 전통 교육과정의 전달식의 접근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10) C. L. Flake,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Holistic Education: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ractices, A Book of Readings Based on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3), pp. 202-203.

11) op. cit.

12) D. Orr,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Washington, D. C.: Island Press, 1994), p. 12.

13) T. Clark, “Holistic Education: A Search for Wholeness”, In R. Miller (ed.),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1991), pp. 53-62.

변용이 요청되는 것이다.

Ⅲ. 홀리스틱교육 시각과 통섭의 비교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홀리스틱과 통섭이란 용어는 포괄성, 관계성, 연계성, 경계 허물기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통섭은 “모아서 실천하는 것”까지 의미하며, 통합은 “모으다”라는 뜻이다. 통섭 논의를 이끈 최재천은 『통섭: 지식의 대통합(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을 쓴 윌슨(E. Wilson)의 제자로서, 그의 핵심사상인 호모심비우스¹⁴⁾(homo symbious, 공생적 인간)에서 통섭 논의의 방향을 시사한다.

불교의 통섭은 홀리스틱교육의 연계성 및 시대정신으로서의 인간화라는 차원에서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개념에 의미있는 시사를 한다. 불(佛)이란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된 마음(一心)을 일컫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심의 통섭적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효가 귀일심원(歸一心源), 즉 하나의 마음뿌리로 돌아갈 것을 설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¹⁵⁾

불교의 통섭적 세계관은 자비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자비심의 결여란 영적 일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통섭적 세계관을 갖지 못한 데 기인한다. 온전히 하나가 된 진여한 마음은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주체요 화쟁(和靜)의 주체인 까닭에 일체의 공덕의 근원이 되며 평화와 행복의 원천이 된다. 불교의 자비, 즉 타자/타존재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가엽게 여김은 곧 자기보살핌을 의미한다. 네스(Arne Naess)는 심층생태학과 불교의 생태적 관점에서 자애를 ‘자비로 보살피고, 자비로 느끼고, 자비로 행위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을 껴안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교의 수행은 존재 비존재를 껴안은 자애의 수행은 홀리스틱 통찰, 즉 존재들 간 무경계성이라는 통섭의 시각을 통해 ‘무경계적이면서도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면화하는 것이다.¹⁶⁾

14) 호모심비우스(homo symbious)는 공생적 인간하며, 생태주의에서 나오는 이론이다(도정일, 최재천, 『대화』 (서울: 휴머니스트, 2005). 자연에 속한 존재로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일컫는 생물학·생태학적 존재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동물적 인간의 궁극적 단계를 호모사피엔스라고 할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동아프리카원숭이. 호모에렉투스는 두발로 걷는 이, 호모하빌리스는 도구 사용 유인원,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사피엔스로 계보가 이어진다. 호모인포르마티쿠스는 정보적 존재로 하버마스가 만든 조어이다. 호모사케르는 ‘신성한 존재’로서 제물로 받쳐진 존재를 말하는데, 인류사회의 아무런 법적 돌봄을 못받는 존재이다. 호모사케르란 말은 소외된 존재로서 누구도 죽일 수 있는 존재를 말한다. 홀리스틱교육이 말하는 배려, 생태학적 관계의 개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15) 최민자, 『통섭의 기술』 (서울: 모시는 사람들), 173쪽.

1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서울: 동국대학교, 2006), 276-280쪽.

윌슨(E. Wilson)의 통섭 논의의 치명적 약점은 자연과학을 헤게모니로 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적 틀은 일체의 모든 현상을 유전자와 문화의 공진화이다. 공진화 통해 후성규칙을 만들고, 그 후성규칙이 유전학적으로 되물림되며, 인간윤리, 마음, 종교도 그와 같은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질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홀리스틱교육과 소위 지적설계론자들이 말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있다. 우리 시대는 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조화로 통섭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으며, 무시하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윌슨(E. Wilson)은 지나치게 환원주의적 시각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모더니즘의 한계인 환원주의와 결정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입장인 홀리스틱교육과의 연계에서 통섭 개념이 드러내는 문제이다.

그러면 통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의 가능성은 있는가? 홀리스틱교육은 ‘관계성’을 중심으로한 이론적 틀은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서 21세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적 개념이다. “지식과 삶에 대한 광범위하고 현명한 전일적인(holistic) 접근보다 특별한 전문가적 기술과 기능에 가치를”¹⁷⁾ 둔 데에서 아동을 지덕체, 지정의와 같은 홀리스틱한 존재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라스무스(D. Erasmus), 루소(J. J. Rousseau), 페스탈로찌(J. H. Pestalozzi), 프뢰벨(F. Froebel), 몬테소리(M. Montessori), 케이(E. Key), 듀이(J. Dewey) 등과 같은 아동교육사상가들에 의해 인류는 아동의 세기라는 20세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아동의 창조적인 능력과 전인성, 학습을 자기발견의 내면적 과정과 협동적 활동으로 바라보는 홀리스틱교육이라고 하는 가장 통합된 안목으로 인간과 교육을 바라보게 되었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고대로부터 홀리스틱 사고가 있었지만, 현대의 홀리스틱 사고와 인식을 체계화하게 된 데에는 양자이론이나 화이트헤드(A. Whitehead), 프리고진(I. Prigogine), 카프라(F. Kapra)와 같은 신과학사상가들의 발견에 의한 것이다.¹⁸⁾ 홀리스틱교육은 인간과 그와 관계된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로서 전일적, 통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모든 교육은 생태계를 보호하는 실천지성을 갖춘 사람, 즉 생태학적인 감각¹⁹⁾과 소양에 대한 신념을 갖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다. 홀리스틱교육은 또한 생명, 생태계, 전인, 전일성의 시각을 바탕으로 인간성과 개성의 존중, 경험중심, 내적 자아와 보다

17) W. E. Doll, *A POST-MODERN PERSPECTIVE*, 김복영 역,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서울: 교육과학사, 1997), 243쪽.

18) op. cit.

19) 생태학적 감각(ecological sense)은 인간의 삶은 식물, 동물, 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권을 포함하는 거대한 조직의 일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생태학적 감각을 통한 자각의 내용으로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의 최근의 접근인 에코페미니즘적 시각과 ‘보살핌(caring)’에 대한 인식이다. 여성과 환경문제를 이론적으로 접목한 주요한 여성학의 한 갈래를 우리는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부른다. 에코페미니즘의 특징은 세상의 만물이 이분법적인 것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되어 있다는 홀리스틱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이다.

심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교사, 자율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선택의 자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세계와를 보다 나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적 모자이크 사고의 지구 시민교육, 지구생명권교육, 인간의 존재차원의 확장으로서의 영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교육이다.²⁰⁾

학습자를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홀리스틱교육사상은 균형(balance)과 포괄(inclusion) 그리고 연계(connection)를 강조한다. 이전의 교육철학보다 더 깊고 넓은 교육이론과 경험의 스펙트럼을 강조한다. 심신의 연계, 교과영역간의 연계, 이웃과 공동체와의 연계, 지구와의 연계, 자기(Self), 인간으로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다. 홀리스틱교육은 이전의 전인교육론보다 정신적인 연관의 깊이를 더 강조한다. 즉 알고, 체험하고, 행동하는 교육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인류보편적인 입장에서의 보다 깊은 책임을 느끼는 교육과 인간의 양성을 지향하며, 이는 다양성과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정보화사회에서의 전인교육을 위해 교육의 과정에 대한 귀한 시사를 한다.

간학문적 접근에서 탈학문적 접근방법으로 접근하는 홀리스틱교육은 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홀리스틱교육이란 간학문적 접근 이후에 영적, 생태학적, 관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탈학문적 접근으로의 전환으로서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덕체의 삼육교육은 18, 19세기 계몽주의 진보사상에 입각한 교육철학에서 시작한 것이고, 20세기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육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홀리스틱교육이란 지, 덕, 체(혹은 지정의)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 전체 영역의 조화롭고 균형진 발전과 인간 존재차원의 깊이에 대한 이해이다. 여기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해는 제4심리학으로서의 초개인심리학(transpersonal psychology)의 인간이해이며, 홀리스틱교육의 인간이해이다. 홀리스틱교육의 탈학문적 접근이 통섭에 시사하는 주요한 내용은 모더니즘의 인간이해를 뛰어넘는 보다 심원한 인간이해와 모더니즘의 한계인 지식의 가치 문제에 있어서 가치의 회복을 주장한다. 홀리스틱교육과 통섭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교육이든지 그 교육은 홀리스틱교육이 되어야한다. 통섭은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한 학습, 학문방법, 방법론이다. 학문방법은 통섭으로 가야한다고 보며, 궁극적 목적은 홀리스틱교육이다. 홀리스틱의 내외적 연계의식은 종교교육이 기르려고 하는 전인의 내용과 같다. 그러한 면에서 홀리스틱교육의 시각을 통한 통섭 논의는 종교교육의 목표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를 한다.

20) C. L. Flake,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Holistic Education: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ractices, A Book of Readings Based on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1993), pp. 240-247.

Ⅳ. 통섭의 구현을 위한 종교교육 모형 구성

통섭은 모더니즘 기획의 산물인 결정론적 사고의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발전의 변증법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이 궁극적으로 홀리스틱교육이라고 할 때, 통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섭이라고 하는 자체가 경계를 허무는 작업이요,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 통섭은 바로 종교, 큰 가르침의 지향점과 같다고 할 것이다. 홀리스틱교육은 모더니즘의 요소주의를 극복하는 무경계(no boundary)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논의의 기본을 이루는 연계성과 관계성이라는 차원에서 종교교육의 개념과 지향 및 당위를 열 가지로 제시한다. 달리 말하면 이 열 가지 논의는 이 장에서 제시할 에니어그램과 스토리텔링 모델을 통하여 구현하려고 하는 접근의 기초이자 지향이기도 하다. 종교교육으로서의 홀리스틱 시각에서의 통섭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와 같은 생태학적 인식이 우리의 인식과 삶을 통섭적으로 바꾸고 발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습득의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첫째, 종교교육은 ‘모든 교육은 환경교육이다’라는 인식 하에 관계성과 연계성으로 바탕으로 하는 유기적이고 생태학인 사고(ecological thinking)를 근본으로 한다.

둘째, 종교교육은 전인교육이다. 전인교육을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구조적 본성에 부합하는 교육’이라고 할 때, 전인교육이란 보통 학생들의 지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 도덕적 발달, 영적 발달 등 전면적인(holistic) 인간성의 교육을 위한 전면적인 교육이다.

셋째, 종교교육은 내면의 조화와 외적 타자와의 더불어 사는 배려의 정신을 기르는 교육이다.

넷째, 종교교육은 그 사람의 가치와 도덕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때, 특히 가치관과 도덕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인지, 정서적 그리고 특히 영적 가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다섯째, 심미적 경험을 수반 않고, 작품의 창조과정을 통한 내면의 열림을 수반하지 않는 교육은 핵심을 잃어버린 교육이므로 종교교육은 열림과 창발을 기본으로 하는 깊은 내적 경험을 중시한다.

여섯째, 종교교육은 유기체의 내면의 활동과 조화를 이해하고 나를 둘러싼 이웃과 세계, 우주와의 생태학적 연계성에 대한 자각의 교육이다.

일곱째, 종교교육은 마음과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의미추구의 교육이다.

여덟째, 종교교육은 제 학문의 통섭과 개인과 집단 차원의 성찰과 연대를 통한 접근이어야 한다.

아홉째, 종교교육은 공동체와의 공존과 연대와 협동을 통한 집단지성의 가치에 대한 인

식과 참여가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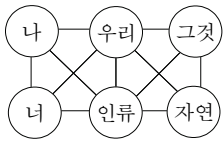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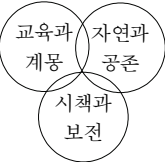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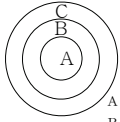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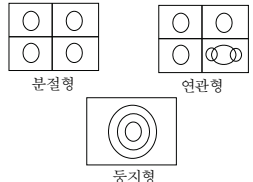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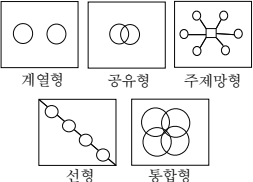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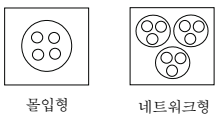
열째, 종교교육은 개인과 집단 의식에 있어서 더 높은 차원으로의 지속적인(ongoing) 향상을 위한 자기성찰을 하는 건전한 인격과 사고를 갖춘 교양인이 되는 것이다.

열한째, 종교교육은 “병든 사회와 병든 교육의 뿌리는 같다”는 인간 개인과 공동체와 인간의 삶의 원리가 밀접하게 생태학적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의식에 바탕을 둔다.

열두째, 종교교육은 기본적으로 통섭적이다. 통섭은 모더니즘 시대의 인식인 전문성을 확보한 단일학문만의 접근으로는 더 이상 학문 영역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경계를 허물어 해법을 찾아 종파적 요소를 넘어서서 인간의 의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이러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종교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로 보다 포괄적(inclusive)인 접근방법으로서의 탈학문적(transdisciplinary) 접근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영역의 지식과 접근들(다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 탈학문적 접근(홀리스틱 접근)), 에니어그램, 스토리모델 등을 고려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본다.

〈표 1〉 Miller, Fogarty, 명지원의 교과/교과연계의 비교²¹⁾

① 다학문적 접근 Multidisciplinary	② 간학문적 접근 Interdisciplinary	③ 탈학문적 접근(홀리스틱) transdisciplinary	비 고
분리된 교과목이나 내용 등을 통하여 열린 고리 찾기	문제나 실문 혹은 제안된 테마를 중심으로 교과목 통합	넓은 패턴이나 테마를 중심으로 모든 과목을 통합	John P. Miller (1996)
환경의 윤리 보전의 태도 이용의 기술	환경관 형성 인간과 환경 선택적 균형	결정자 의식 장단기 균형 해결의 기술	명지원
		A 감성 B 이성 C 이성  A 인간적 양심 B 지구적 생태 C 우주적 질서	도형은 J. P. Miller (1996) 내용은 명지원(2000) Ken Wilber(1998)
단일학문 간의 통합유형	각학문 간의 통합유형	학습자 내, 학습자 간의 유형	R. Fogarty(1991)
			R. Fogarty ²²⁾ (1991) 최유현 (1999)

21) 명지원, 『홀리스틱교육에 의한 통합교육과정 구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03쪽.

〈표 1〉은 종교교육을 위한 모형 제시의 가능성으로서 ‘생태 환경’을 주제로 홀리스틱 교육 시각을 통한 다양한 학문 연구방법으로서의 통섭의 접근방법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다.

위의 표의 설명을 위하여 통섭과 통합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섭은 ‘서로 다른 요소 또는 이론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단위로 거듭남’을 의미하며, 유사한 용어로 통합은 ‘모두 합쳐서 하나로 모음 또는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모아서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통일 또는 응집의 의미를 지닌다.²³⁾ 여기서의 접근이 통합의 개념을 넘어 통섭을 위한 접근이라고 할 때, 생태학적 사고를 기본 인식으로 하는 종교교육으로서의 홀리스틱교육의 접근방법으로서의 통섭은 다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을 포괄하는 탈학문적 접근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학문적 접근은 분과 내용을 통한 모종의 연계가 있을 수 있으며, 방법으로는 전달(transmission)이 강조된다. 두 번째 수준으로서의 간학문적 통합으로는 두세개 교과목의 통합으로, 여기에서는 독립된 학문들의 논리적 통일성이 존중되며, 상호작용의 연계성을 의미하는 교호(交互, transaction)가 강조된다. 세 번째 수준에서는 광범위한 패턴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거의 모든 교과목의 통합이자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넓이와 깊이에 있어서 더 넓고 더 깊어지는 과정을 강조하는 변용(transformation)이 강조된다.²⁴⁾

홀리스틱교육 시각에서의 통섭의 예를 모색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측면에서 환경을 주제로 접근할 때, 〈표 1〉과 같은 통섭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포거티(R. Fogarty)의 3유형 10가지 모형은 다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 탈학문적 접근 세 가지 분류 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학문적 접근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데, 환경의 윤리, 보전의 태도, 이용의 기술 등의 주제를 다학문적 수준에서 나와 너, 우리와 인류, 그것과 자연 등과 연계시켰으며, 이를 포거티(R. Fogarty)의 분절형, 연관형, 등지형 등과 연계하였다. 또한 환경관 형성, 인간과 환경, 선택과 균형 등의 주제를 간학문적 수준에서 교육과 계몽, 자연과 공존, 시책과 보전 등과 연계하였으며, 이를 다시 포거티(R. Fogarty)의 계열형, 공유형, 주제망형, 선형, 통합형 등과도 연계하였다.

아울러 결정자 의식, 장단기 균형, 해결의 기술 등의 주제를 통합[탈학문]적 수준에서 인간적 양심을 전달하고, 지구적 생태계와 교류하며, 우주적 질서의 변용을 기대하면서, 포거티(R. Fogarty)의 몰입형, 네트워크형 등과 연계지어 영성을 진작하여, 총체적, 균형과 포괄, 연계를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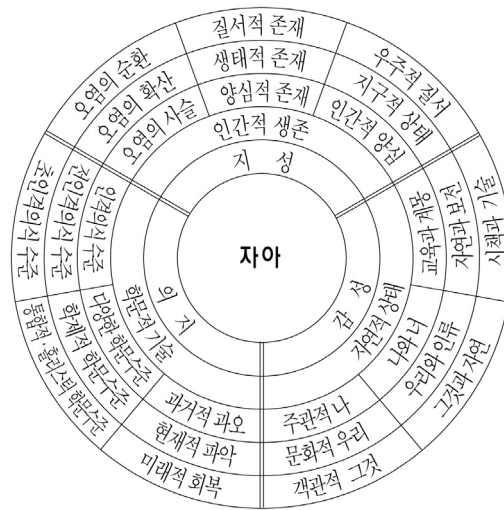
22) Robin Fogarty & Judy Stoeher, *Integrating Curriculum with Multiple Intelligences: Teams, Themes & Threads* (CA: IRI/SkyLight Publishing Inc, 1995), pp. 21-42.

23) 도정일·최재천, 『대답: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26쪽.

24) Miller, J. P., *The Holistic Curriculum* (Toronto: OISE Press, 1996), pp. 125-131.

칸트(I. Kant)의 인간이해를 감성과 감각경험을, 오성과 개념적 논증적 지성을, 이성과 초월적 이념의 직관이란 3대 인식형태로 구분하여, 내면화된 인간이해의 층위를 제시하였다. 이 유형을 홀리스틱교육방법의 이해와 모색을 위해 홀리스틱교육의 통합교육과 연계 지어, 감성과 감각경험은 전달과, 오성과 개념적 논증적 지성은 교류와 이성과 초월적 이념의 직관은 변용으로 연계시켰다.

이러한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포거티(R. Forgarty)의 열 가지 통합모형과(R. Miller)의 전달, 교류, 변용 모형의 통합 논의를 바탕으로 종교교육의 목적인 연계의식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접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인간·자연·학문의 홀리스틱 에니어그램

밀러(R. Miller)는 균형, 포괄, 연계 등을 홀리스틱교육의 핵심요소로 들고 있다.²⁵⁾ 홀리스틱 통합교육과정의 핵심은 연계이다. 연계는 단순한 일차원적인 연계가 아니고 사차원적인 연계, 즉 직선적, 평면적, 공간적, 시간적 연계가 되어야 하며, 균형과 포괄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철학적 원리를 살려서, 인간·자연·학문의 차원에서 인간적 생존과 자연적 생태와 학문적 기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세 가지 접근방법(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과 에니어그램(3중추의 3조씩 = 9요소로 구성, 총 $3 \times 3 \times 3 = 27$ 요소)으로 균형·포괄·연계를 통한 통섭을 시도하였다.

〈그림 1〉에서 인간·자연·학문의 홀리스틱 에니어그램의 3중추를 지정의로 보았고, ‘생태와 환경’ 교육에서는 인간적 생존·자연적 상태·학문적 기술로 보았다. 다학문적

25) 송민영·김현재, 『홀리스틱 교육과정』 (서울: 책사랑, 1999), 3-10쪽.

접근, 간학문적 접근, 홀리스틱 접근을 학문적 기술[접근]에 분류하여 포함시켰으며, 생태계의 오염문제가 인간적 생존과 자연적 생태와 과학적 기술과의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환경과학으로서의 ‘생태계와 환경’의 보전과 오염문제를 교수-학습할 때에 홀리스틱교육의 통합과정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밀러(R. Miller)의 스토리모델을 준용하면서 오르(D. W. Orr)의 ‘교육에 대한 여섯 가지 재고’²⁶⁾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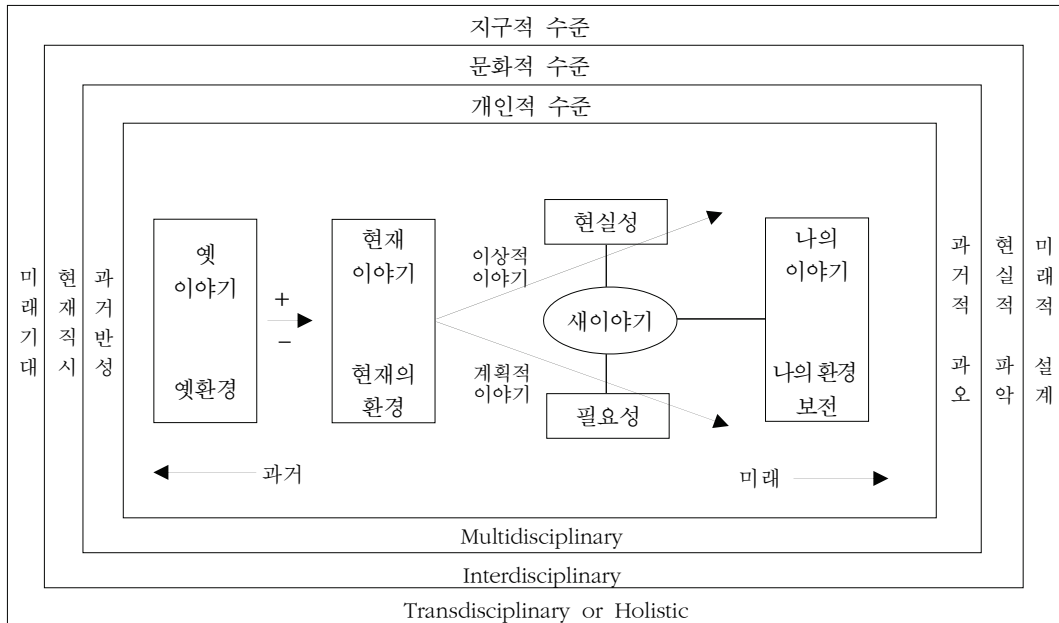
환경과학으로서의 ‘생태계와 오염’은 교과로서 한정지을 수 있지만, 이들의 범위나 심도에 있어서는 전우주적 범위에서, 지구적, 지역적으로, 환경이나 생태계의 오염도 그 원인이나 영향이나 대처상황이나 방법 등이 과거·현재·미래에 걸쳐서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이고 보면, 특별한 교수-학습과정이나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단히 난해한 문제이다. 따라서 어떤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교과시간에 다루더라도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과 기술이 요구되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토리텔링으로서의 스토리모델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와 분석을 중시하는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탈학문적 접근으로서의 스토리모델은 개인적·문화적·지구적·우주적 이야기를 통해 주제에 접근하여 삶과 생명에 관하여 다른 접근보다 깊은 사고와 내면화를 가져오게 한다. 주제에 관하여 그것을 학습자 자신의 이야기, 보다 확대된 문화적 이야기, 지구적 이야기, 그리고 우주까지 생태학적으로 연계된 삶 그리고 생명의 개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연결 속에서 진행해 나간다.

학습자는 현재 이야기를 확인함으로써 시작해 나갈 수 있다. 흔히 이러한 이야기는 가족, 교육 그리고 경제와 같은 커다란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학교개혁 그리고 구조조정 등에 대한 관심과 같은 쟁점에 초점을 둘 수 있다. 현재 이야기로부터 학생들은 교육의 과거 이야기를 조사할 수 있다. 학습자는 과거와 현재를 파악하고 나면 이상적 이야기와 투사된 이야기를 만들어 새로운 이야기를 개발한다. 이상은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며, 이것은 홀리스틱교육에 대한 비전을 포함한다.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살펴본 후,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학습자는 쟁점을 중심으로 탐구적 질문을 개발하고, 이 질문은 반성과 숙고를 허용하는 개방적 질문이 되어야 한다. 이 질문들을 개발한 후, 학생들은 각 질문에 대하여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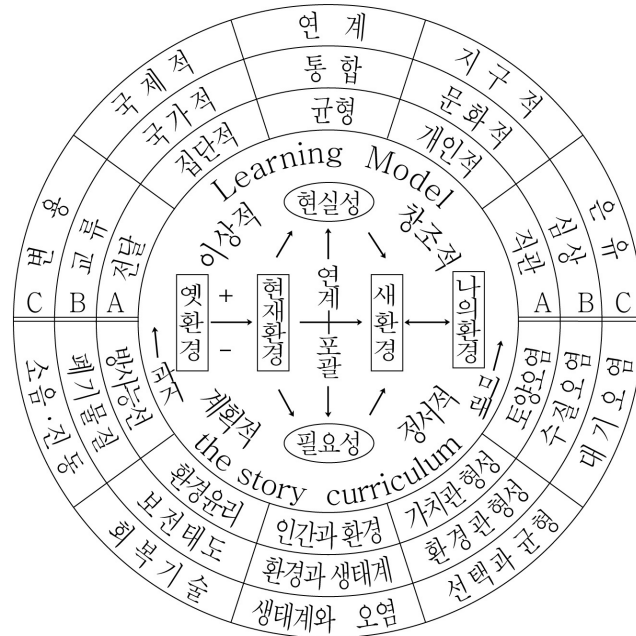
여기에서의 스토리텔링 외에도 다른 교과와의 연계에 대해서 탈학문적 접근은 드레이크(S. Drake)와 그의 동료들(1992)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이는 경험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신화나 설화의 중요성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환경과 생태계, 오염으로 내용을 바꿈으로써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26) D. W. Orr,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Washington, D. C.: Island Press, 1994), pp. 131-132.



〈그림 2〉 스토리모델(The Story Model) (Miller의 모델 일부 개조)

밀러(R. Miller)와 드레이크(S. Drake)의 스토리모델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홀리스틱교육 통합교육과정의 실제안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물론 이 스토리모델은 다음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의 구체적 내용과 과정과 방법 제시의 근간이 된다. 〈그림 2〉는 인간이 아직 환경이나 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았던 옛 환경의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이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현재 환경으로 현실성과 필요성을 수용하며, 새 환경인 나의 환경을 창조·정서적으로 포괄하고 연계하여 구상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영역을 통섭하여 보다 풍부한 이야기로 탄생할 수 있다.



〈그림 3〉 환경·생태·오염 스토리모델

이 모델의 학문적 수준은 외대원 C, 외중원 B, 외소원 A로 구분하였고(〈그림 3〉), 내원 속에 밀러(R. Miller) 등의 스토리모델을 균형과 포괄과 연계를 지어서 전체가 통합되도록 고려하였다. 특히 옛 이야기(story)를 ‘환경’으로 대치하였다.

이 환경·생태계·오염의 학습통합모형은 지금까지 설계한 내용을 총망라 한 것이어서, 스토리 교육과정이 되며 동시에, 학습모델이 된다. 위 환경·생태계·오염 스토리모델은 세 가지 학문 접근 고려한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내용을 다학문적, 간학문적, 탈학문적 학문수준에서와 이것을 다시 개인적, 문화적, 지구적 수준과 집단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균형과 포괄과 연계를 지어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식의 내면화를 모색한다.

위 〈그림 3〉의 상반원에는 환경과학으로서의 환경·생태계·오염의 구체적인 통합과정을 제시하였다. 먼저 ‘나’와 ‘너’의 수준에서 ‘인간과 환경’을, ‘우리’와 ‘인류’의 수준에서 ‘환경과 생태계’를, ‘그것’과 ‘자연’의 수준에서 ‘생태계와 오염’을 망라하는데, 여기에는 환경의 윤리와 보전태도와 회복기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가치관 형성과 환경관 형성, 그리고 선택과 균형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통합교육과정 모형과 학습내용을 전개하는 데는 홀리스틱교육에서 밀러(R. Miller)와 드레이크(S. Drake) 등이 구상한 스토리텔링의 원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의 타임라인에서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지난 과거의 환경과 생태계의 오염문제를 제기한다. 이때에 계획적이고 이상적인 현재를 시점으로 미래를 전망하면서, 즉 옛 환경→현재환경→새 환경으로 전망하면서, 현실성과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환경과 새 환경 사이의 현실성과 필요성 사이에 포괄과 연계를 꾀해야 하고, 창조적이고 정서적인 학습자의 환경을 구축한다.

이때 환경·생태계·오염에 대한 홀리스틱교육 통합교육과정의 설계는 이들의 과거에 대한 세밀한 반성과 현재의 철저한 현상과 원인 구명, 그리고 이들을 극복하는 대책과 회복에서 미래적 보전을, 균형·포괄·연계를 도모한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이다.

이상의 홀리스틱교육 실천을 위한 통합교육과정의 설계에서 중차대하고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생존과 자연(생태계), 학문(기술)의 문제이다. 이상과 철학과 꿈이 없는 환경의 보전은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각해야 한다.

생명 개념을 환경교육의 문제의 핵심에 두는 홀리스틱교육은 분석과 논리보다는 삶의 문제의 구체성과 직관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니어그램과 스토리모형을 주요접근으로 하는 홀리스틱 관점에서의 환경교육 통합교육과정은 다학문적 접근, 간학문적 접근을 포괄하는 탈학문적 접근이다. 이 접근은 제학문적 접근의 분석과 논리, 사고를 중심으로 한 접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이요, 통섭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홀리스틱교육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홀리스틱교육의 시각을 통한 통섭의 가능성 모색을 통한 교육의 가능성과 과제 그리고 전망은 종교교육으로서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큰 그림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홀리스틱 관점에서 통섭을 통한 환경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는데 밀러(R. Miller)의 전달, 교호, 변용 모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전달 입장은 학습자를 어른이 정해놓은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이는 프레이리가 말한 은행모델(banking model) 식으로 기계론적 인식에 기초하여, 내용을 더욱 작게 잘라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원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교호는 자연은 복잡적 시스템으로서, 합리적 계획과 과학과 기술공학의 사용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어 있으며, 자연보다 뛰어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적, 정치적, 또는 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만으로는 궁극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교호의 입장은 현 통섭 논의 속에 개진되는 일반적인 논의이다. 그러나 위의 에니어그램과 스토리모형이 제시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공동체적 노력과 각성이 없이는 환경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21세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의 교육은 단순히 체제와 구조의 위기가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이를 떠받치고 있는 인간개념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생태학적 각성(ecological awakening)’이 요구된다.²⁷⁾ 변용은 통

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이 추구하는 입장이며, 자연은 단순히 자원의 개념 그 이상이며, 모든 생물은 상호연계·의존한다. 오늘날 환경교육은 대부분 교호 입장과 일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대의 교육은 어느 일개 지역적 시각이 아닌 지구적, 우주적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왜냐 하면,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시간과 장소가 응축된 지구촌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은 지구시민으로서 살아갈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협력에 대한 비전을 위해 협동학습과 공동체에 대한 조망이 있어야 한다. 지구시민으로서의 공동체적 비전이 있을 때, 이는 개인적 비전과 공명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흥미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인간 영혼의 내부 깊은 곳에 자리한 희망을 자극하기 때문이다.²⁸⁾

생태와 환경교육의 목적은 인간의 마음과 의식의 변화라는 점에서 바로 이 지점이 종교교육과의 만나는 지점이다. 이를 위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공동체의식과 전인류의 연대를 위한 적합한 표어일 것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이 의식과 인식의 지평을 홀리스틱하게 바꾸는 것이다.

V. 종교교육을 위한 홀리스틱교육과 통섭 논의의 시사

홀리스틱교육은 인간의 존재차원을 지덕체, 지정의 등 다양하게 구분하는 18, 19세기 인간관을 넘어 사회적이고, 영적이며, 제4심리학으로서의 초개인심리학의 접근을 통해 더 넓고 깊은 의미로 접근한다. 인간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와의 홀리스틱 균형, 연계, 포괄의 시각을 통해 지속적인(ongoing) 변용을 추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홀리스틱교육의 시각을 통한 통섭 논의의 전망을 모색할 때, 통섭논의의 발전이 홀리스틱교육에 발전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과 통섭이론에 기반한 교육공학적 차원의 홀리스틱교육을 구축해야 한다는 전망을 끌어내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현대교육이 전인적 교육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부분을 홀리스틱교육이 해결하기 위해 홀리스틱교육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이론체계로서 통섭을 하고, 결국 통섭이론을 기초로 홀리스틱교육의 종교교육적 내용과 방법적 접근방법을 설계하면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 홀리스틱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현대교육

27) 한명희·고진호, 앞의 책, 457쪽.

28) E. T. Clark,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Integrated Curriculum: A Student-Centered Approach* (Holistic Education Press, 1997), p. 47.

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IV장에서 확인하였다.

베버(M. Weber)는 탈마법화(disenchantment, 탈미신화, 탈주술화)라는 용어를 통해 모더니즘 과학이 전통사회의 감정적 사고를 몰아냈음을 표현하였다.²⁹⁾ 프랑스의 사회학자 마페졸리(Michel Maffesoli)는 1960년대 이후의 현대사회를 재마법화(재주술화, re-enchanting)된 세계로 명명하였는데, 모더니즘의 탈마법화 경향을 지나 포스트모던시대에는 다시 마법화를 지향하고, 감성적 가치의 중요성이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했다고 하는 것이다.³⁰⁾ 바로 이 지점이 통섭 논의의 타당성과 홀리스틱교육의 이론적 타당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현 상황에서는 각 지식 영역의 통섭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으로서, 통섭 논의의 방향이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나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야한다. 그것이 모더니즘을 성찰하고 그 전철을 밟지 않으며, 이론과 교육현실의 괴리를 막는 방법일 것이다. 오늘날 통섭에 관한 논의는 모더니즘 기획의 한계로 인식되는 ‘진리’와의 거리를 좁혀 학문 본연의 정체성 확립으로서 인식되는 진리의 추구여야 한다.

본래 교육은 홀리스틱교육이었다. 통섭을 통한 학문 본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계를 허물고 함께 문제해결을 모색을 할 때, 홀리스틱교육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재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홀리스틱교육은 원래 통섭적이다. 모든 학문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을 주제로 한 통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의 가능성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생태학적 감각이다. 생태학적 감각의 회복을 통해 생태적 소양능력을 기르는 교육이어야 한다. 인간의 삶은 단지 식물·동물·우리가 살고 있는 생물권을 포함한 거대한 조직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출발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거나 현재도 인간은 생태학적 자각을 무시했고,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공해·오염·파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존과 연대 및 협동의 교육이 요청된다. “병든 문명, 병든 사회, 병든 교육의 원인은 같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의식 속에 공감을 형성하여 연대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개인과 인류의 생존과 행복은 더 이상 어떤 단일학문이나 기계론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개인의 맥락이 지구인 전체의 맥락과 연계되어 있는 상호의존·연계의 시대에 살고 있다.

통섭은 이러한 인류의 생존 문제에 각 학문 영역의 헤게모니가 아닌 열린 마음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내어주는 방식의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홀리스틱교육은 모더니즘의 한계인 지식의 가치 문제에 있어서 가치의 회복을 주장한다. 통섭을 통한, 실증주의적 사고를 넘어서는 인간과 세계의 심원한 문제에 있어서도, 종교와 과학에 있어서도, 예술과 문화에 있어도 홀리스틱교육은 열린 입장에 있다.

29) Max Weber, *Wissenschaft als Beruf*,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나남, 2006), 45-52쪽.

30) Wiki Encyclopedia.

통섭은 이전부터 모든 학문과 인간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었다. 모더니즘의 전문성과 폐쇄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대안으로 통섭이 등장했으며, 모더니즘이 놓쳤던 교육의 본질을 인간의 내외적 요소의 통합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종교교육의 지향과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의 입장은 학문 제 영역을 비롯한 더 많은 영역으로 확산되리라 예측된다.

VI. 결 론

21세기 대안적 교육패러다임으로 인정되고 있는 홀리스틱 교육은 ‘관계성’을 특징으로 하며, 모더니즘의 파편화와 요소주의적인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병든 문명과 병든 교육의 근원은 같다”는 생태학적 각성을 통한 인간 본질 회복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종교교육의 지향과 일치한다.

통섭은 모더니즘이 기획한 학문과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문성과 단절의 결과를 비판하고 경계를 허물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접근이다. 정보사회에서의 문제해결은 더 이상 마스터키와 같은 해결책이 없고, 각 학문과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대이다. 두 용어의 의미에 있어서 관계와 연계를 통한 경계 허물기를 통한 새로운 관계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더 이상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가치 개념을 따지지 않는 기계론적인 객관적 지식 추구의 학문행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인간 삶의 자각과 성찰과는 관계 없는 중립적인 지식으로서 우리의 삶과 유리된 ‘저기 바깥’의 교육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과 연계되어 있는 지식과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통섭은 이제 모더니즘 시대의 인식인 전문성을 확보한 단일학문만의 접근으로는 더 이상 학문 영역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경계를 허물어 해법을 찾고, 인간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21세기 교육에 있어서의 관심 영역의 확대는 환경교육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태와 환경’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관계성은 21세기 교육의 지향을 말해준다. ‘환경’이라는 단어는 생태학적, 맥락적, 시스템적, 형성적이라는 표현과 그 의미에 있어서 연계성과 전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교육은 환경적이다. 환경교육의 목적은 마음과 의식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전인의 문제는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깊다. 인간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전세계적인 환경위기에 직면하여 오늘날 학교교육은 환경교육이 요청되고 있다. 생태와 환경 개념은 여타의 다른 분과목(separate disciplinary)처럼 나뉘어진 것이 아닌 모든 학문과 연계되어 통섭을 통하여 탈학문적인 홀리스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늘날 강조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성장과 삶의 방식, 생산과 소비, 배려와 만족하는 삶, 인간 의식과 존엄성을 높이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삶에 만족을 주는 문화와 예술 활동, 관계에 있어서 충만한 연계감 등은 학문 제 영역과 생활세계에서 통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표 1〉,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서 말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통섭 차원에서의 제학문의 통섭과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의 성찰과 연대를 통한 접근은 통섭을 통한 홀리스틱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의미있는 예이다.

통섭 개념의 변증법적 변화는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의 합명제를 찾기 위한 통섭적 접근을 통해 감성적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여 균형을 찾아야 한다. 관계성과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공동체와의 공존과 연대와 협동을 통한 집단지성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참여, 개인과 집단 의식에 있어서의 더 높은 차원으로서의 향상과 지속적인(ongoing) 자기성찰, 그래서 건전한 인격과 사고를 갖춘 상식적 교양인이 되는 것이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한 홀리스틱교육 시각에서의 통섭 논의의 핵심이다. 이는 종교교육의 지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하여 종교교육이 지향해야할 점에 대한 의미있는 시사를 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익, 「지식 대통합, 지금의 통섭으로 부족하다」, 『최재천 교수의 통섭에 대한 비판』, 서울: 고대신문, 2007. 10. 16.
- 김복영, 「에코페미니즘과 홀리스틱 교육」, 『홀리스틱 교육 실천 연구』, 2(2), 서울: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1998.
- ,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과 홀리스틱 교육」, 『홀리스틱교육 실천 연구』, 3(2), 서울: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1999.
- 김복영·이루다, 「Ken Wilber의 4상한이론(AQAL)을 활용한 통합교육과정 모색」, 『교육과정 연구』, 28(1), 서울: 교육과정학회, 2010.
- 김재희, 『신과학 산책』, 서울: 김영사, 1998.
- 김현재, 「열린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홀리스틱교육의 탐색」, 21세기 교육변혁을 위한 홀리스틱교육 교장연수자료, 1999.
- 도정일·최재천, 『대담: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5.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편, 『지식기반사회와 불교생태학』, 서울: 동국대학교, 2006.
- 명지원, 「총체적 인간교육을 위한 교육적 지향 탐색」, 『홀리스틱교육연구』, 7(1), 서울: 홀리스틱교육학회, 2003.
- 박이문,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생태학적 세계관을 위하여』, 서울: 민음사, 1996.
- 송민영, 『홀리스틱 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2006.
- 오인탁, 「홀리스틱교육과 행복한 교육」, 『홀리스틱교육연구』 5(2), 서울: 홀리스틱교육학회, 2001.
- 이성은, 「Whitehead의 철학과 교육론, 교육과 인간」, 『안인희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서울: 학지사, 1993.
- , 「과학혁명구조와 한국 열린교육」, 『교육철학』, 14(2)호, 서울: 교육철학회, 1996.
- 이어령, 『디지로그』, 서울: 생각의 나무, 2006.
- 최돈형, 「고도산업사회와 환경교육의 과제」, 『교육학연구』, 31(4), 서울: 한국교육학회, 1993.
- 최민자, 『통섭의 기술』,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0.
- 최종덕, 「통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동국대학원신문』, 2008.9.10.
- 한명희,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과 인간상의 문제」, 2000년도 한국교육사회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I, 2000.
- 한명희·고진호, 『교육의 철학적 이해』, 서울: 문음사, 2005.
- Binde, J. *Ou vont les valeurs?* 이선희·주재형 역, (2008),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유네스코, 21세기의 대화—세계의 지성 49인에게 묻다 현대의 지성 130』, 서울: 문학과학사, 2004.
- Clark, E. T. Environmental Education as an Integrative Study. I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R. Miller(ed.), Brandon, Vermont, Holistic Education Press, 38-52, 1990.
- ,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Integrated Curriculum: Student-Centered*

- Approach*, Holistic Education Press, 1997.
- Dokins, R. *The Selfish Gene: with a New Introduction by the Author*. 홍영남 · 이상임 역. (2010).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06.
- Doll, W. E. *Curriculum and postmodernist perspective*. 김복영 역. (1997). 『교육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 서울: 교육과학사. 1998.
- S. Drake, S., Bebbington, J., Laksman, S., Markie, P., Maynes, N., & Wayne, L. *Developing an Integrated Curriculum Using the Story Mode*. Toronto: OISE Press, 1992.
- Flake, C. L.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Holistic Education: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ractices, A Book of Readings Based on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40-247. 1993.
- Fogarty, R., & Stoehr, J. *Integrating Curriculum with Multiple Intelligences: Teams, Themes & Threads*. IRI/SkyLight Publishing Inc. 1995.
- Gang, P. "The Global-EcoCentric Paradigm in Education". I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R. Miller(ed.). Brandon, Vermont, Holistic Education Press, 78-88. 1990.
- Maffesoli, M. re-enchantment. www.wikipedia.org. 2009/10/5
- Manchester, W. *American Caesar*. 박광호 역. (2005). 『아메리칸 시저2』. 서울: 이래사. 2005.
- Miller, J. *Spiritual Education*. In *Holistic Education: Principles, Perspectives and Practices, A Book of Readings Based on Education 2000: A Holistic Perspectiv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28-232. 1993.
- Miller, J. *The Holistic Curriculum*. OISE Press. 1996.
- Miller, R. "Holistic Education: A Search for Wholeness". R. Miller(ed.). In *New Directions in Education: Selections from Holistic Education Review*. Brandon, VT: Holistic Education Press, 53-62. 1991.
- Orr, D. *Ecological literac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82.
- _____. What is Education for? Trumpeter: *Journal of Ecosophy*. 8(3). 1991.
- _____.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Washington, D. C.: Island Press. 1994.
- Rachel, C. *Silent Spring*. 김은령 역. (2002). 『침묵의 봄』. 서울: 에코리브로. 1962.
- Smuts, J. C. *Holism and Evolu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26/1961.
- Weber, M. *Wissenschaft als Beruf*. 전성우 역. 『직업으로서의 학문』. 서울: 나남. 1895.
- Wilson, E.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s*. 최재천 · 장대익 역. (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서울: 사이언스북스. 1998.
- 日本ホリスティック教育研究會. 『ホリスティック 教育入門』. 김현재 · 송민영 역. (1995). 『홀리스틱 교육의 이해』. 서울: 책사랑. 1993.

원고접수 : 2012년 1월 16일 1차 심사 : 1월 25일 게재승인일 : 2월 13일

연구자소개 : 명지원

- ① 전공 : 교육학(교육철학, 교육과정) / 소속 : 삼육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 ② 관심영역 : 교육철학, 전인교육, 홀리스틱 교육, 평화교육, 환경교육, 소파 방정환, 교양교육으로서의 인문학, 교육과정, 통섭과 융합
 - ③ 주요논저 : 전인교육의 위기와 진단, 종교교육을 위한 전인교육의 모색,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과 생태학적 세계관, 홀리스틱교육에 의한 통합교육과정 구성, 소설 『순교자』에 나타난 홀리스틱교육의 요소, 홀리스틱교육 관점에서 본 방정환의 유아교육사상 등 다수
 - ④ E-mail : jwmyung@syu.ac.kr
-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Model through Holistic Education and Consilience

Myung, Jiwon

Sahmyook University

In this paper, I will assess Wilson's concept of consilience and thereby try to show the proper way that the consilience and holistic education could meet each other. In section III, I delineated Wilson's concept of consilience and holistic education. It is the core of his project of consilience to unify the humanities and the natural sciences through the natural scientific methods and therefore he claims that it is in principle possible to carry out the project of consilience. In section IV, I examined holistic education – environmental education – through consilience. I dealt with the various types and ways of properly carrying out the transdisciplinary approach on environmental education. And I proposed the Gurjieff's Enneagram on model, Story model on environmental education as holistic education through consilience. In section V, I showed the prospect and the task of consilience and holistic education.

Whole-being education for 21st century is holistic education that is in pursuit of harmony of internal self and neighbor and the universe. From the viewpoint of holistic education and consilience, we need to incorporate the frame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to the perspectives in the following: 1) to emphasize a respect for life and relationships among living things; 2) To emphasize earth ecology education and earth community education; 4) To emphasize the education which integrate body, emotions, consciousness, the spirit; 5) To emphasize an environment in which teachers and students would be real or genuine their communication and meeting.

Key wards: Holistic Education, Consilience, Environmental Education, Transdisciplinary, Enneagram